


봄부터 여름




콘고지
절 내부의 묘지에는 안교정원의 개조(창시자) "요시다 곤노조"의 무덤이 있습니다.
"뜸질의 절"로도 유명하다

미츠쇼우인
안교의 고지대에 위치한 훌륭한 안교 벚꽃 터널의 산도는 언론에도 자주 거론되는 곳입니다. 안교 벚꽃은 3월초 쫄 절정을 맞이합니다.




안교 벚꽃 터널의 산도

만요(만엽)식물원/고향의 숲 이치린소우 자생지
봄에 하얀 가련한 꽃을 피우는 이치린소우는, 카와구치시의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쓰레기 불법 투기로 황폐한 숲이었지만, 자원 봉사자 분들이 이치린소우를 발견하고 노력해오며 자생구역을 넓혀 왔습니다. 사이타마현의 준멸종위기종으로 레드리스트에 기재되어있는 귀중한 식물입니다.



코젠인 초여름에 피는 아지사이(수국)은 한번 볼만한 가치가 있음.
본당 뒤쪽에는 산책길 이 조성되어 잡목속에 안치된 십삼불의 석상을 발견해가며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정원수의 마을 안교 산책로



가을부터 겨울

콘고지(사원)
11월 하순부터 12월 상순까지 산도 (절에 참배하기 위하여 마련된 길)가 예쁘게 수놓아집니다. 산도를 빠져나오면 카야부키(일본 전통 가옥의 지붕)의 산문(절의 정문)이 눈앞에.
이 산문은 에도시대 초기 건립되었으며 전형적인 에도 초기 요츠아시문 (네발문: 일본 문의 건축양식 중 하나)의 양식을 나타내는 귀중한 건물입니다.
콘고지(절)의 아름다운 산도




만요(만엽)식물원/고향의 숲
만요식물원 만요집의 구절에서 읊어지고있는 식물을 심어, 와카(고전시)를 즐기면서 계절별 식물을 감상할 수 있다. 각 식물에는 와카를 해설하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향의 숲 속에 있는 식물원



코젠인 (작은 사원)
산문의 단풍 나무는 가을이 되면 형형색색의 단풍으로 변화합니다. 9월 중순보다 하간바나(꽃) 시즌을 맞아 새빨간 하간바나가 군생하는 풍경은 환상적입니다.
경내가 붉게 물드는 단풍 숲





새 일본 도보 기행 100선
고향의 길 인정 코스



안교 (Ankyo) 산책 길

정원수의 마을 안교(Ankyo)의 자연과 화훼를 더듬어 가는 길

새 일본 도보 기행 100선에 선정되었습니다
"새 일본 도보 기행 100선"의 "고향의 길"에"정원수의 고향 안교의 자연·화훼를 찾아가는 길"이 선정되었습니다.
풍요로운 자연을 가진 안교의 사계절을 느끼면서 산책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30일 인정

